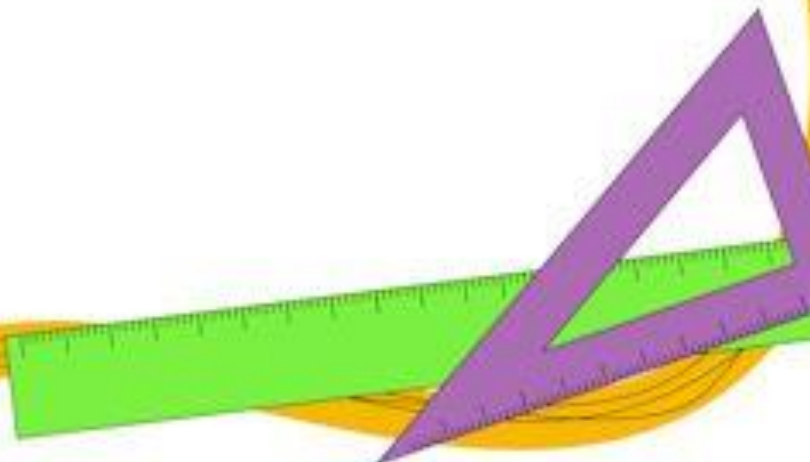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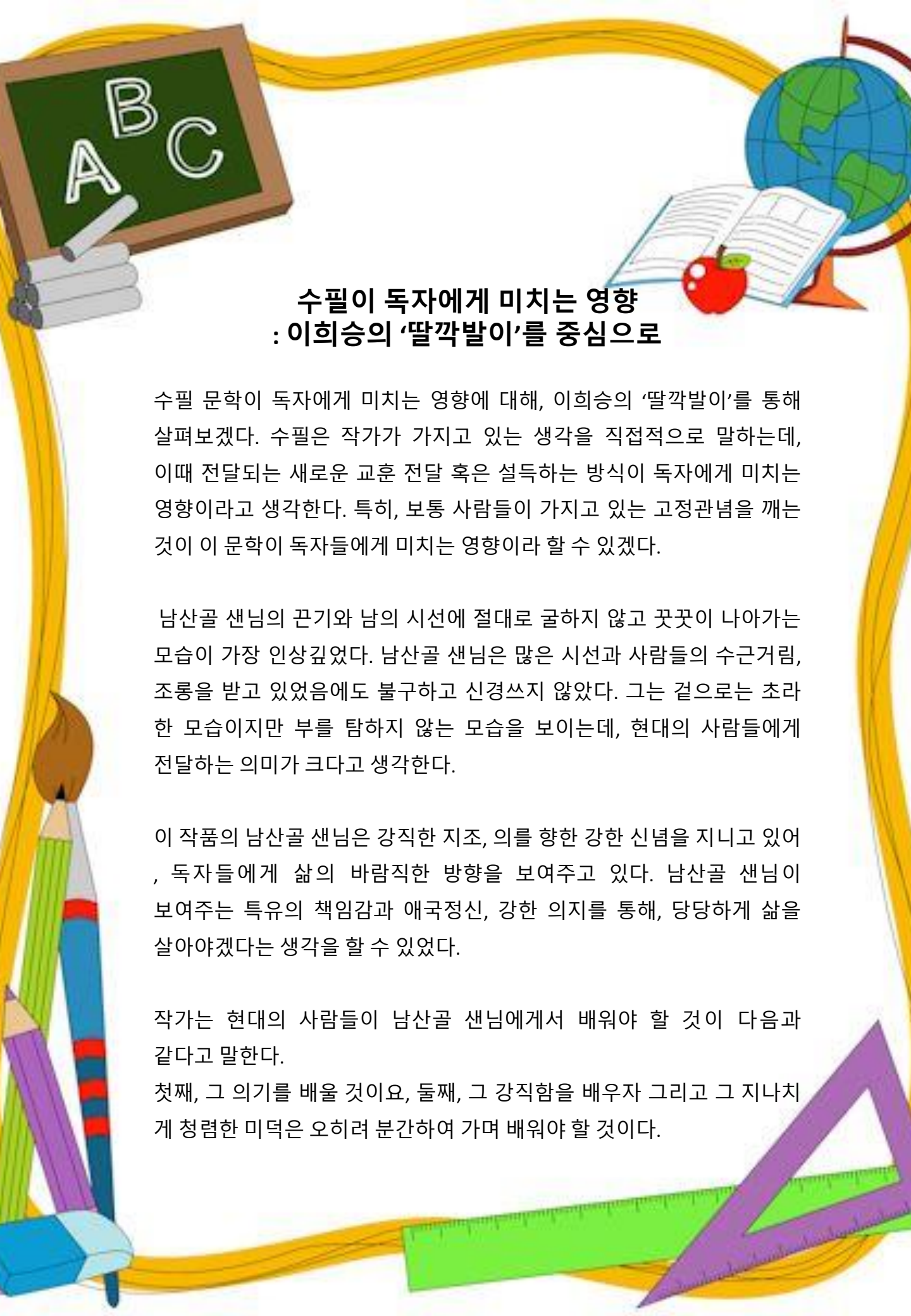




# **Student Creativity Korean Literary Works**





## 수필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이희승의 ‘딸깍발이’를 중심으로

수필 문학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희승의 ‘딸깍발이’를 통해 살펴보겠다. 수필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이때 전달되는 새로운 교훈 전달 혹은 설득하는 방식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이 문학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겠다.

남산골 샌님의 끈기와 남의 시선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깊었다. 남산골 샌님은 많은 시선과 사람들의 수근거림, 조롱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쓰지 않았다. 그는 겉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부를 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의 남산골 샌님은 강직한 지조, 의를 향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어, 독자들에게 삶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남산골 샌님이 보여주는 특유의 책임감과 애국정신, 강한 의지를 통해, 당당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작가는 현대의 사람들이 남산골 샌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첫째, 그 의기를 배울 것이요, 둘째, 그 강직함을 배우자 그리고 그 지나치게 청렴한 미덕은 오히려 분간하여 가며 배워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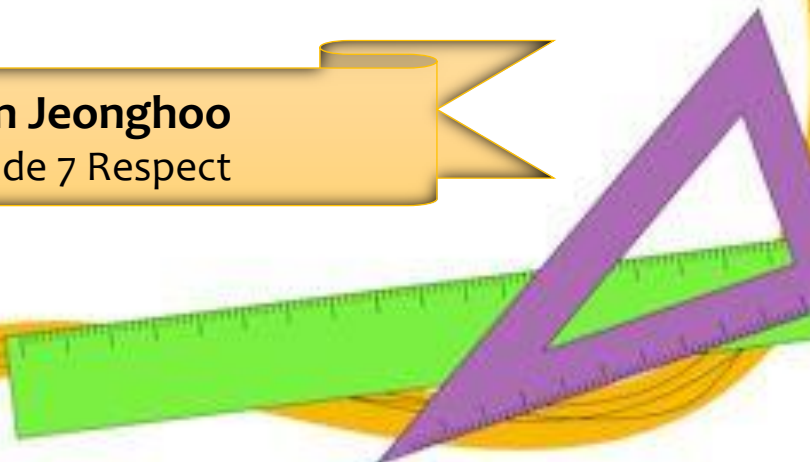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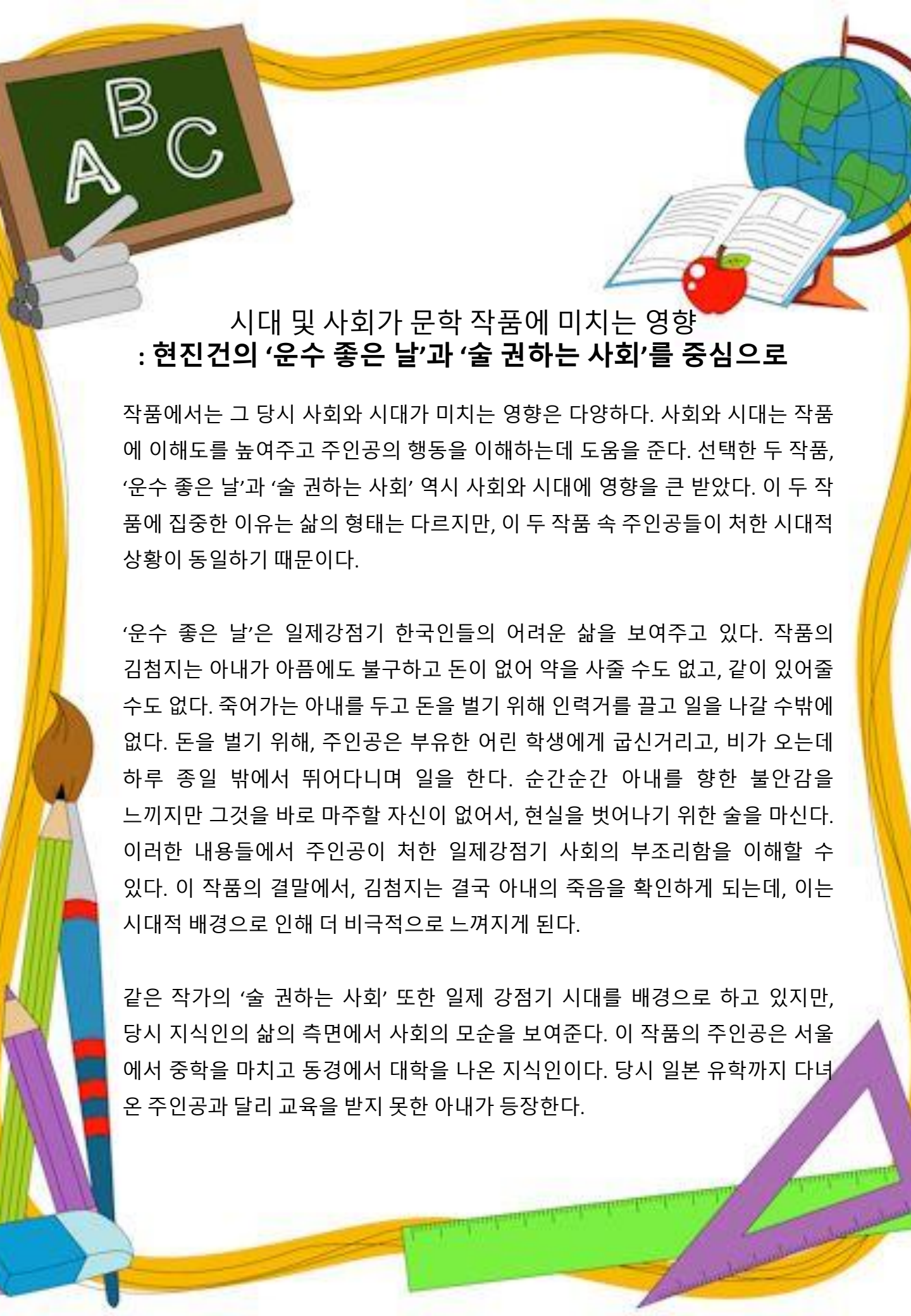
신발도 없을만큼 가난한 남산골 선생님이 권력과 부를 탐하지 않고, 선비의 정신을 품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 역시 이 딸각발이에 해당한다. 작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에 올곧은 정신이 이어져 내려왔음을 주장하며,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G7 Respect **윤정후** Yun Jeonghoo



**Yun Jeonghoo**  
Grade 7 Respect





## 시대 및 사회가 문학 작품에 미치는 영향 :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술 권하는 사회'를 중심으로

작품에서는 그 당시 사회와 시대가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사회와 시대는 작품에 이해도를 높여주고 주인공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선택한 두 작품, '운수 좋은 날'과 '술 권하는 사회' 역시 사회와 시대에 영향을 큰 받았다. 이 두 작품에 집중한 이유는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두 작품 속 주인공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운수 좋은 날'은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어려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김첨지는 아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약을 사줄 수도 없고, 같이 있어줄 수도 없다.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인력거를 끌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주인공은 부유한 어린 학생에게 굽신거리고,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다니며 일을 한다. 순간순간 아내를 향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바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술을 마신다. 이러한 내용들에서 주인공이 처한 일제강점기 사회의 부조리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결말에서, 김첨지는 결국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같은 작가의 '술 권하는 사회' 또한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지식인의 삶의 측면에서 사회의 모순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중학을 마치고 동경에서 대학을 나온 지식인이다. 당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주인공과 달리 교육을 받지 못한 아내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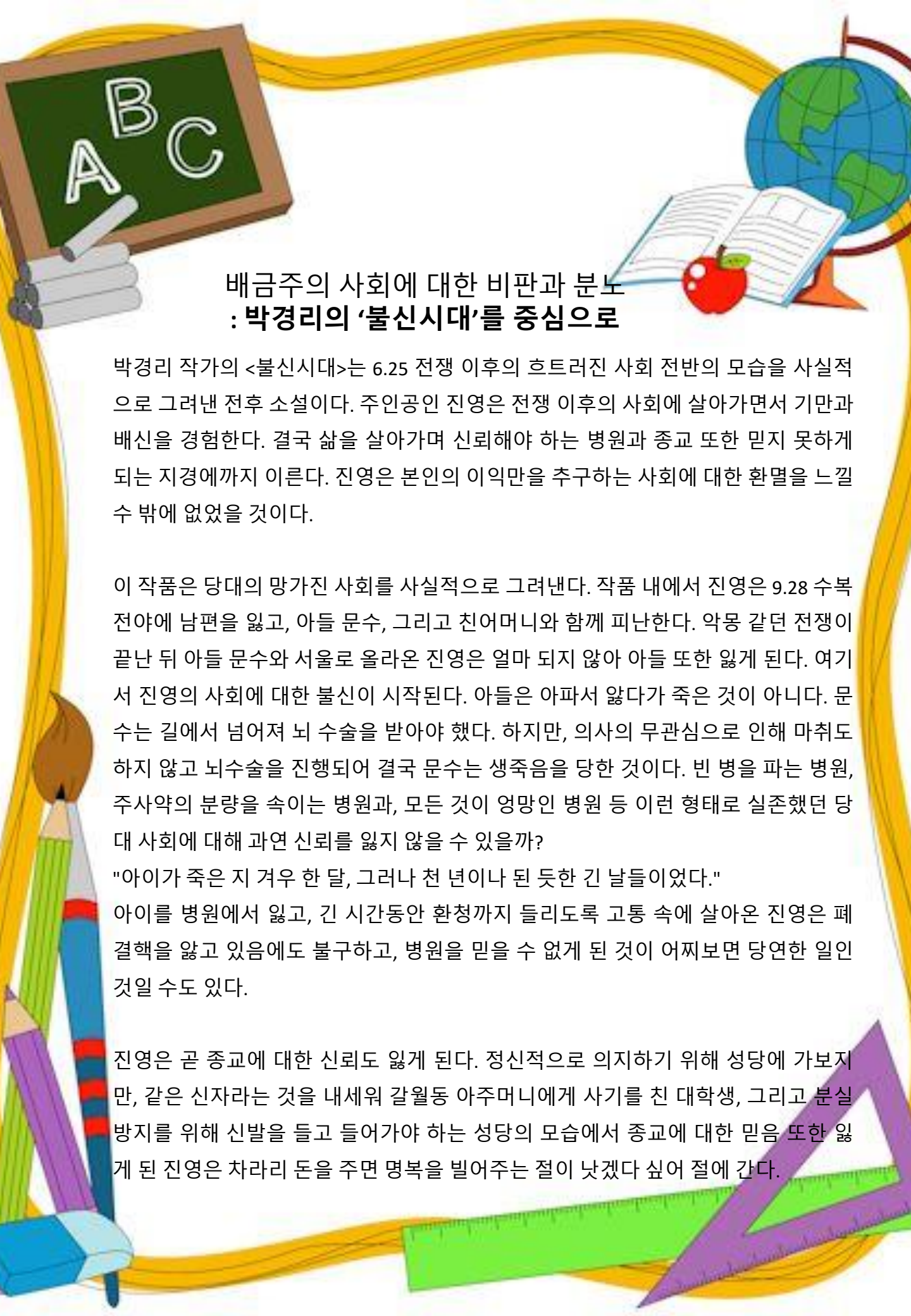


‘술 권하는 사회’에서 주인공은 지식인으로, 그의 아내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온다. 둘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내는 주인공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주인공이 ‘사회가 술을 권한다’고 할 때 그의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지식인인 주인공과 잘 배우지 못한 그의 아내 사이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사회는 전체적인 작품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선택한 두 작품 ‘운수 좋은 날’과 ‘술 권하는 사회’에 배경은 모두 일제강점기로 실제 당시 사람들이 계층을 떠나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며, 좀 더 작품을 사실적으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시대적 배경은 주인공들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게 하고, 작품과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G8 고동협 Ko DongHyeop**

**Ko Dong Hyeop**  
Grade 8 Respect



## 배금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분노 : 박경리의 '불신시대'를 중심으로

박경리 작가의 <불신시대>는 6.25 전쟁 이후의 흐트러진 사회 전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전후 소설이다. 주인공인 진영은 전쟁 이후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기만과 배신을 경험한다. 결국 삶을 살아가며 신뢰해야 하는 병원과 종교 또한 믿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진영은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당대의 망가진 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작품 내에서 진영은 9.28 수복 전야에 남편을 잃고, 아들 문수, 그리고 친어머니와 함께 피난한다. 악몽 같던 전쟁이 끝난 뒤 아들 문수와 서울로 올라온 진영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또한 잃게 된다. 여기서 진영의 사회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다. 아들은 아파서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문수는 길에서 넘어져 뇌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의사의 무관심으로 인해 마취도 하지 않고 뇌수술을 진행되어 결국 문수는 생죽음을 당한 것이다. 빈 병을 파는 병원, 주사약의 분량을 속이는 병원과, 모든 것이 엉망인 병원 등 이런 형태로 실존했던 당대 사회에 대해 과연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천 년이나 된 듯한 긴 날들이었다."

아이를 병원에서 잃고, 긴 시간동안 환청까지 들리도록 고통 속에 살아온 진영은 폐결핵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 것일 수도 있다.

진영은 곧 종교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된다. 정신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성당에 가보지만, 같은 신자라는 것을 내세워 갈월동 아주머니에게 사기를 친 대학생, 그리고 분실 방지를 위해 신발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성당의 모습에서 종교에 대한 믿음 또한 잃게 된 진영은 차라리 돈을 주면 명복을 빌어주는 절이 낫겠다 싶어 절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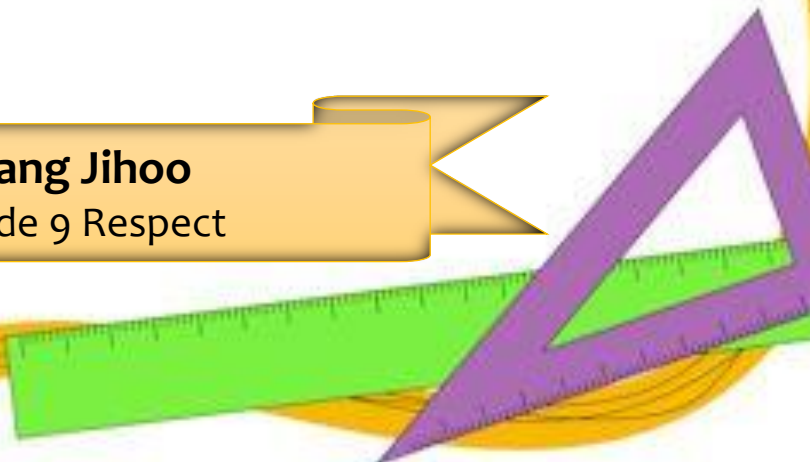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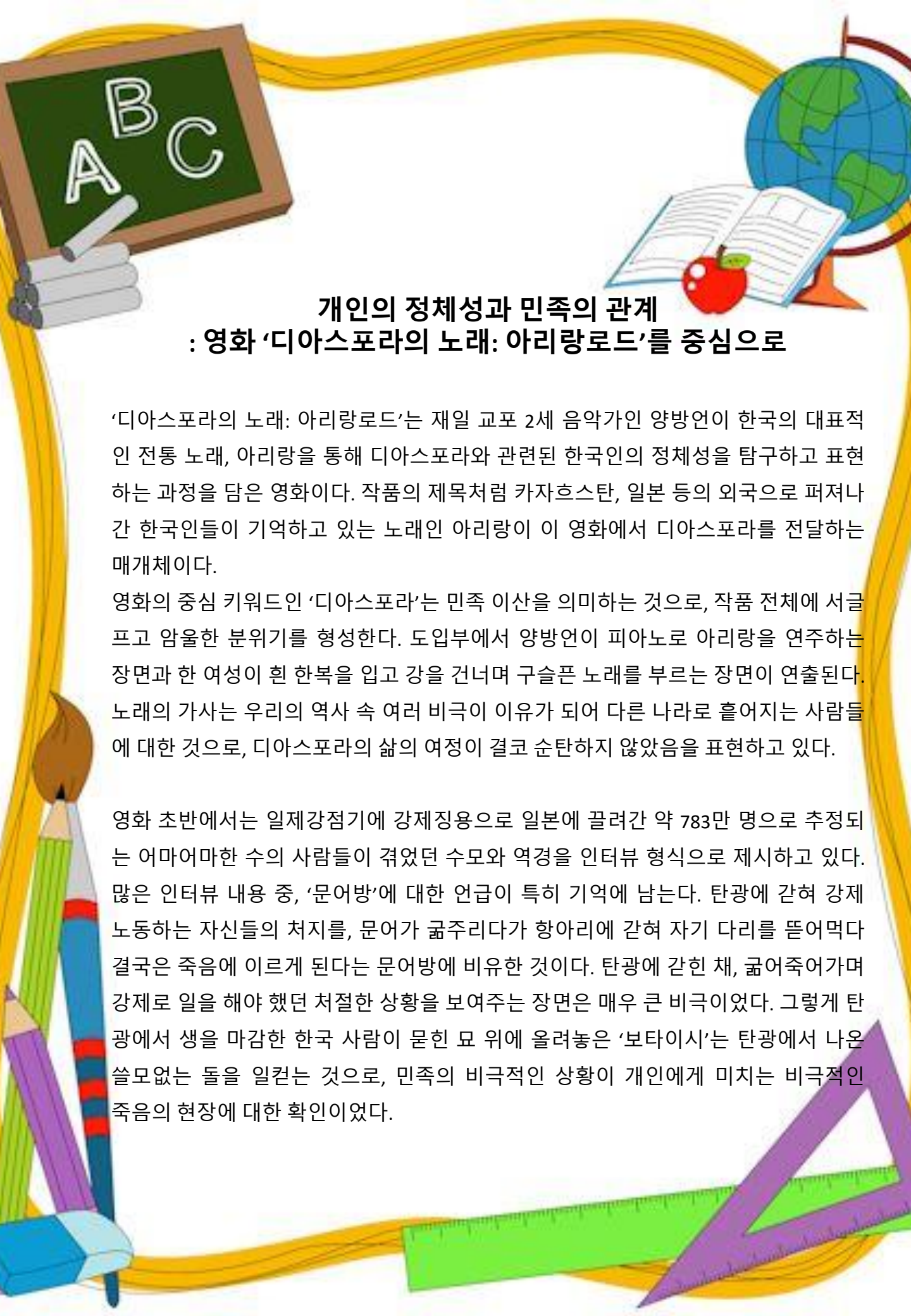
하지만, 돈을 비교적 적게 가져간 진영은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라는 홀대를 받고, 또 한 번, 배금주의에 찌든 사회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노한다.

생명을 믿고 맡겨야 하는 병원과,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종교. 그런 모습이 사회 전반에 가득했다는 점에서 진영은 사회에 시대를 불신하게 된다. 진영은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불태움으로써 사회의 부조리함에 휘둘리지 않고, 맞서는 자세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불신시대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소신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진영의 의지를 통해, 작가의 시대에 대한 고발과 '불신시대'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G9 강지후 Kang Jihoo**

**Kang Jihoo**  
Grade 9 Respect





##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의 관계 : 영화 '디아스포라의 노래: 아리랑로드'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의 노래: 아리랑로드’는 재일 교포 2세 음악가인 양방언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노래, 아리랑을 통해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작품의 제목처럼 카자흐스탄, 일본 등의 외국으로 퍼져나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노래인 아리랑이 이 영화에서 디아스포라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영화의 중심 키워드인 ‘디아스포라’는 민족 이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 전체에 서글프고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도입부에서 양방언이 피아노로 아리랑을 연주하는 장면과 한 여성이 흰 한복을 입고 강을 건너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연출된다. 노래의 가사는 우리의 역사 속 여러 비극이 이유가 되어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영화 초반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약 783만 명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겪었던 수모와 역경을 인터뷰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많은 인터뷰 내용 중, ‘문어방’에 대한 언급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탄광에 갇혀 강제노동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문어가 굶주리다가 항아리에 갇혀 자기 다리를 뜯어먹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문어방에 비유한 것이다. 탄광에 갇힌 채, 굶어죽어가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던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은 매우 큰 비극이었다. 그렇게 탄광에서 생을 마감한 한국 사람이 묻힌 묘 위에 올려놓은 ‘보타이시’는 탄광에서 나온 쓸모없는 돌을 일컫는 것으로,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비극적인 죽음의 현장에 대한 확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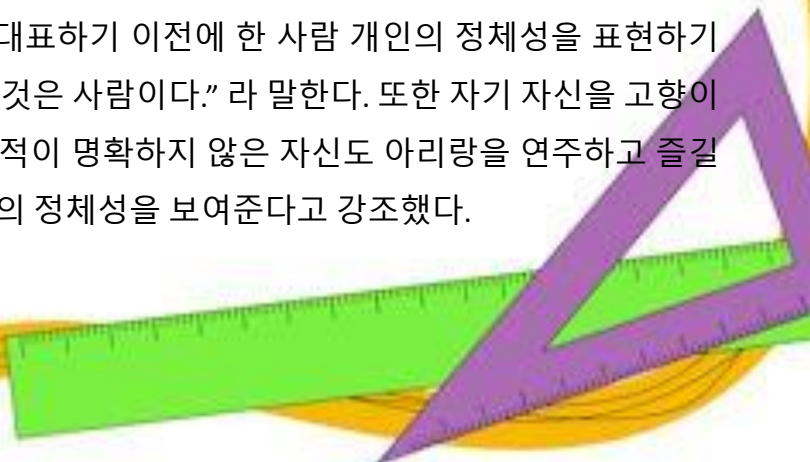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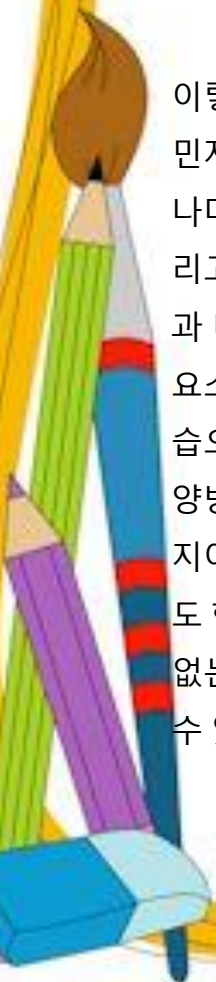




비슷한 여러 이유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후손들의 인터뷰가 계속되었고, 이런 세계 각국에 흩어진 우리 민족은 열악하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 “겉으로만 한국사람이면 안 된다.”, “우리 문화를, 언어를 잊어버리면 끝이다.” 같은 말은 그들이 직접 체험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런 이산의 현장에 늘 함께 해왔고, 전 세대로부터 전해진 것이 바로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대부분이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노래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리랑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영화의 주제 전달의 매개체가 되는 아리랑은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나온다. 이 민자들이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전해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형태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아리랑부터, 전통 악기와 함께 국악인이 부르는 전형적인 민속노래, 그리고 락커 하현우가 부른 새로운 형식의 현대적인 “변태” 아리랑까지 제각각의 특징과 매력이 있는 노래로 표현된다. 특히 아리랑은 음정과 박자, 가사 등의 노래가 가진 요소들이 사람마다 제각각의 이야기나 취향, 기분 등을 넣어서 부르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형태의 다양함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양방언은 이처럼 아리랑이 누가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 다른 노래가 되는점과 관련지어 아리랑이라는 것은 민족을 대표하기 이전에 한 사람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의미로 “아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라 말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고향이 없는 사람이라 말한 양방언이, 국적이 명확하지 않은 자신도 아리랑을 연주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리랑이 개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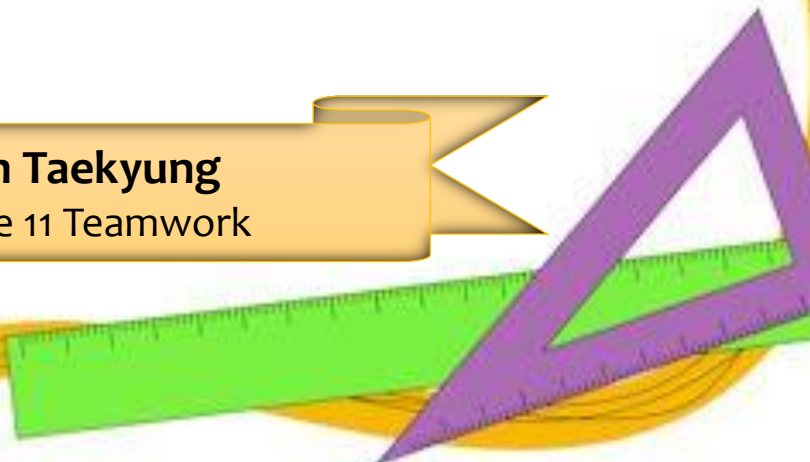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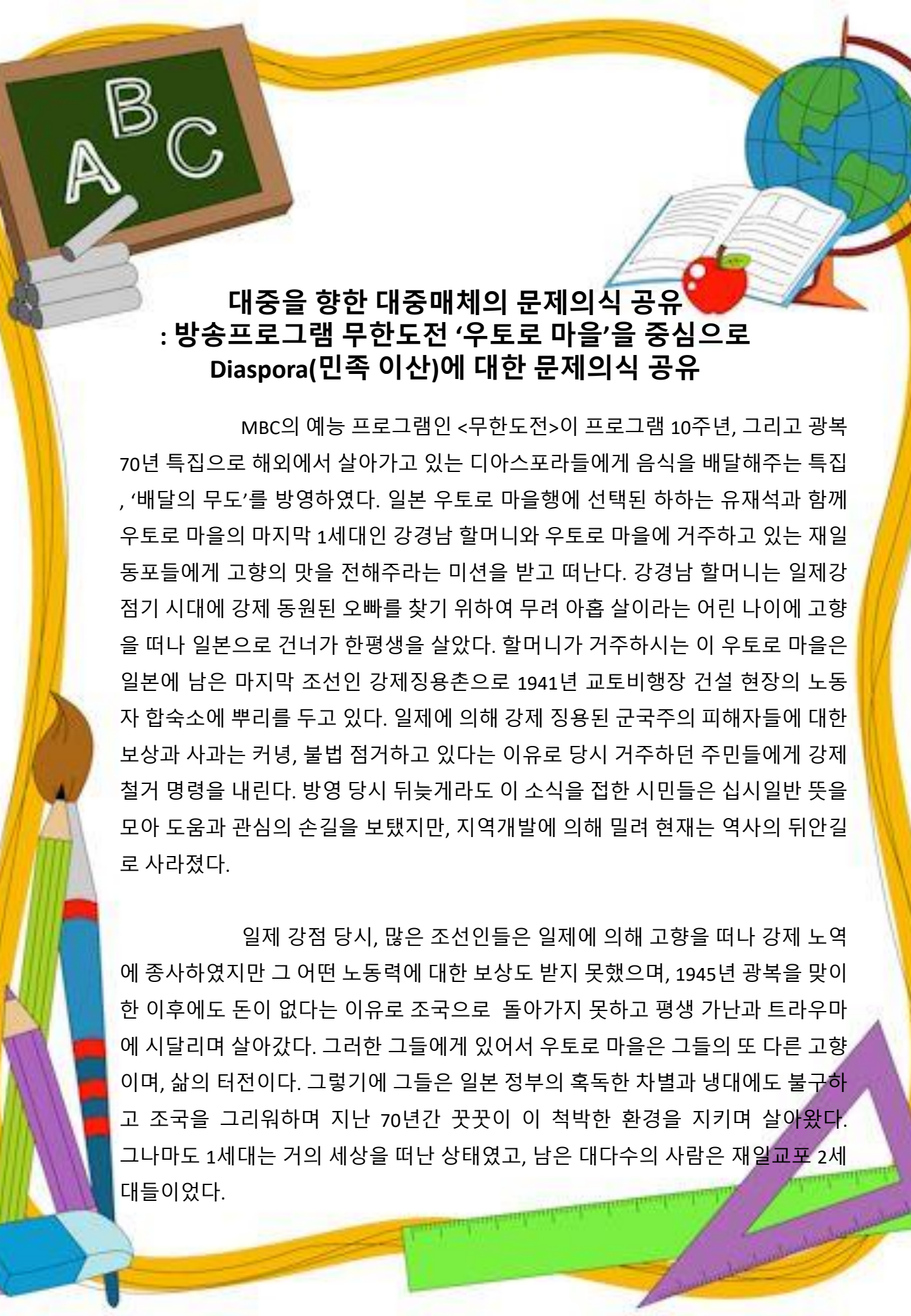
아리랑이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로 표현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여러가지 다른 장르와 가사, 멜로디를 보여주면서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개개인에게마다 특별한 노래로써 각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노래로 묘사된다. 어떤 사회라도 역사를 잊고 전통 문화를 배제할 경우 그것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임을 영화가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리랑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며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을 통해, 민족과 개인의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11 Teamwork 임태경 Lim Taekyung**



**Lim Taekyung**  
Grade 11 Team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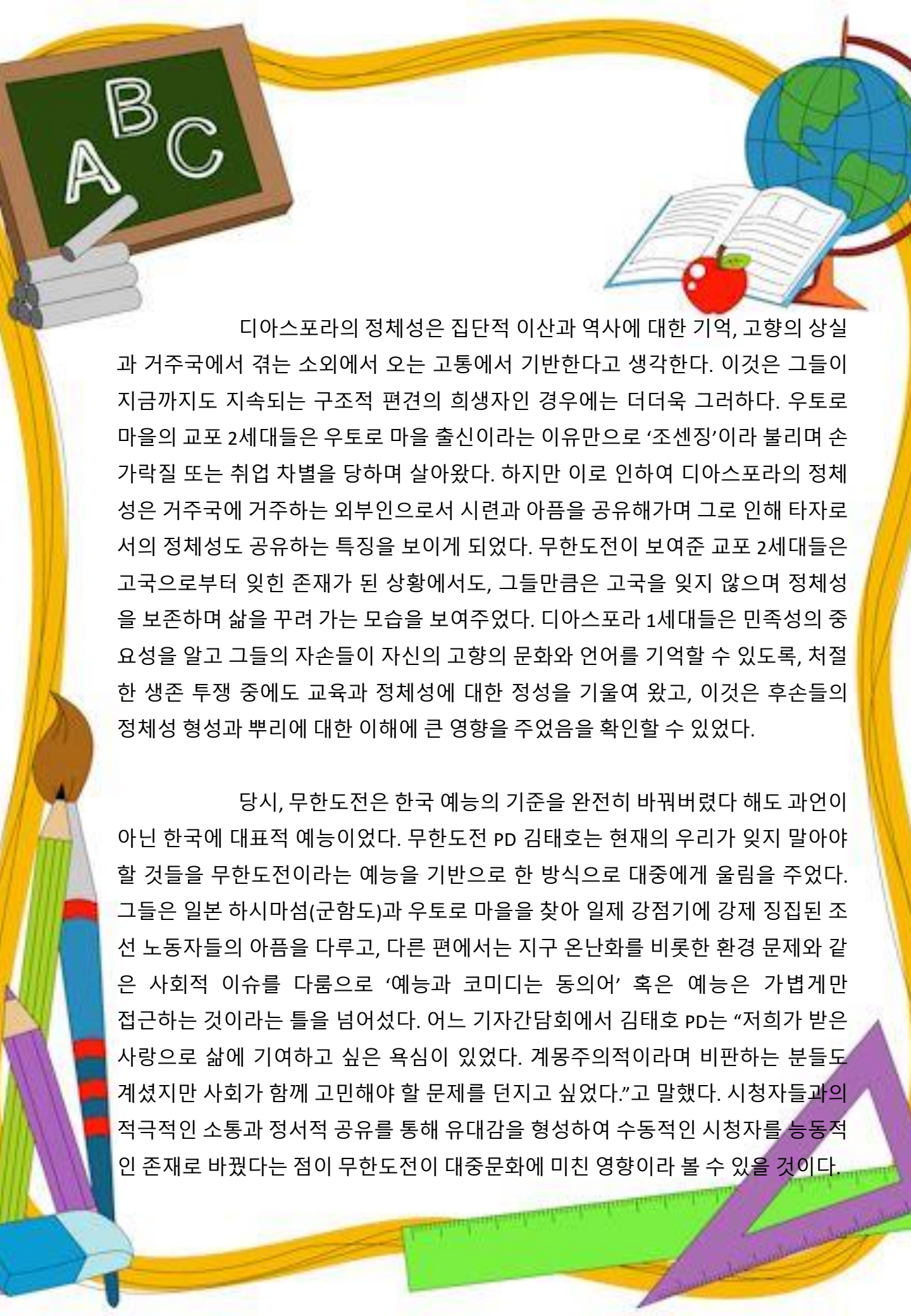




## 대중을 향한 대중매체의 문제의식 공유 :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우토로 마을'을 중심으로 Diaspora(민족 이산)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M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프로그램 10주년, 그리고 광복 70년 특집으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특집, '배달의 무도'를 방영하였다. 일본 우토로 마을행에 선택된 하하는 유재석과 함께 우토로 마을의 마지막 1세대인 강경남 할머니와 우토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동포들에게 고향의 맛을 전해주라는 미션을 받고 떠난다. 강경남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강제 동원된 오빠를 찾기 위하여 무려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 한평생을 살았다.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이 우토로 마을은 일본에 남은 마지막 조선인 강제징용촌으로 1941년 교토비행장 건설 현장의 노동자 합숙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군국주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는 커녕,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린다. 방영 당시 뒤늦게라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십시일반 뜻을 모아 도움과 관심의 손길을 보냈지만, 지역개발에 의해 밀려 현재는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

일제 강점 당시, 많은 조선인들은 일제에 의해 고향을 떠나 강제 노역에 종사하였지만 그 어떤 노동력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가난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갔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우토로 마을은 그들의 또 다른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일본 정부의 혹독한 차별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그리워하며 지난 70년간 곳곳이 이 척박한 환경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나마도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남은 대다수의 사람은 재일교포 2세대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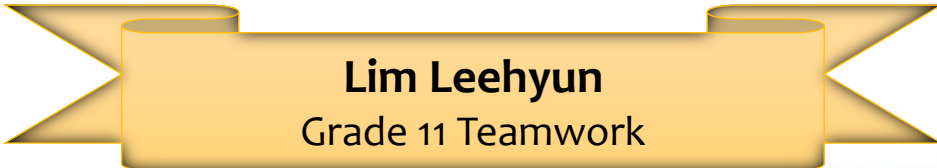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집단적 이산과 역사에 대한 기억, 고향의 상실과 거주국에서 겪는 소외에서 오는 고통에서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구조적 편견의 희생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토로 마을의 교포 2세대들은 우토로 마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센징’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또는 취업 차별을 당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거주국에 거주하는 외부인으로서 시련과 아픔을 공유해가며 그로 인해 타자로서의 정체성도 공유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무한도전이 보여준 교포 2세대들은 고국으로부터 잊힌 존재가 된 상황에서도, 그들만큼은 고국을 잊지 않으며 정체성을 보존하며 삶을 꾸려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디아스포라 1세대들은 민족성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의 자손들이 자신의 고향의 문화와 언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처절한 생존 투쟁 중에도 교육과 정체성에 대한 정성을 기울여 왔고, 이것은 후손들의 정체성 형성과 뿌리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무한도전은 한국 예능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 대표적 예능이었다. 무한도전 PD 김태호는 현재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을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일본 하시마섬(군함도)과 우토로 마을을 찾아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집된 조선 노동자들의 아픔을 다루고, 다른 편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룸으로 ‘예능과 코미디는 동의어’ 혹은 예능은 가볍게만 접근하는 것이라는 틀을 넘어섰다.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호 PD는 “저희가 받은 사랑으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계몽주의적이라며 비판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청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서적 공유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여 수동적인 시청자를 능동적인 존재로 바꿨다는 점이 무한도전이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광복 70년 특집으로 디아스포라에게 고향의 맛을 배달해주는 내용의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특유의 즐거움에 슬픔과 책임감을 더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마지막에서 이별의 순간, 강경남 할머니는 '우리나라'로 조심히 돌아가라 하신다. 우리나라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 혹은 살아가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G11 Teamwork 임이현 Lim Leehyun**



**Lim Leehyun**  
Grade 11 Teamwork

